

사회적 통증 척도(Social Pain Questionnaire)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고 소 회

외교부 마음쉼터 상담센터 센터장

안 성 희[‡]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Strangier, Schüller와 Brähler(2021)이 제작한 사회적 통증 척도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함으로써 국내 사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원척도의 한국어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거친 총 10개의 문항에 20~64세 사이의 성인 남녀 339명이 응답하였고 이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나 한국판 사회적 통증 척도의 1요인 구조가 확정되었다. 수렴타당도의 검증 결과, 사회불안, 대인관계 거절민감성, 성인애착, 우울, 정신건강과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과 합성신뢰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판 사회적 통증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이 검증되었고 이에 따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사회적 통증 척도, 한국어 타당화, 사회적 배제

[†] 이 논문은 2019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안성희, (04066)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94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Tel: 02-320-3352, E-mail: ansh@hongik.ac.kr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강력하고 보편적인 욕구이다(Baumeister & Leary, 1995; Bowlby, 1973). 진화론적으로 볼 때, 배제되거나 배척된다는 것은 생존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류의 초기 단계부터 소속되거나 수용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는 현대사회에도 적용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친구, 직장동료, 동호회 같은 오프라인 모임뿐 아니라 SNS, 메타버스와 같은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온라인상의 SNS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처럼 사회적 집단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되는 것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고 한다.

사회적 배제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소속감의 욕구가 위협받거나 좌절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사회적 배제는 거부(rejection)와 무시/배척(ignorance/ostracism)을 모두 포함한다(Blackhart, Nelson, Knowles, & Baumeister, 2009). 거부는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나 연결을 표현했음에도 명백하게 거절당하는 것인 반면, 무시/배척은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에 대해 명백하지 않고 미묘하게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욕구-위협 모델(need-threat model)에 따르면(Besikci, Dvir, & Williams, 2020) 사회적 배제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소속감(belonging), 자존감(self-esteem), 통제(control) 및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meaningful existence) 욕구를 위협한다고 하였다(Bastian & Haslam, 2010;

Buelow, Okdie, Brunell, & Trost, 2015; Fayant, Muller, Hartgerink, & Lantian, 2014; Molet, Macquet, Lefebvre, & Williams, 2013; Smith & Williams, 2004; Van Beest & Williams, 2006). 사회적 배제는 인간의 정서(Leary, 1990), 인지(Baumeister, Twenge, & Nuss, 2002), 신체(Eisenberger, 2012)에 영향을 끼치며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

이처럼 집단이나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제되거나 거부되었다는 인식으로 유발된 부정적 정서상태를 사회적 통증(social pain)이라고 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사회적 통증이라는 용어는 신경생리학적 과정에서 신체적 통증과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통증의 강도와 역경에 대한 표현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있음이 여러 차례 문헌에 나타난 바 있다. 사회적-신체적 통증 중첩 이론(social-physical pain overlap theory: Eisenberger, Lieberman, & Williams, 2003)에 따르면, 진화적으로 신체적 상해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처럼 사회적 배제도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두 시스템이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공유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위협이 있을 때에 신체적 통증이 감지되는 기존의 신경회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isenberger & Lieberman, 2004; MacDonald & Leary, 2005). 급성 신체적 통증이 생존과 관련된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인 것처럼, 사회적 통증도 생존과 관련된 사회적 위협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급성 사회적 통증 경험이 신체적 통증의 불쾌함을 처리하는 뇌영역과 동일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Onoda et al., 2009).

사회적 통증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반응을 일으킨다. 먼저 사회적 통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인지 반응으로는 회피가 있다.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 우선 통증의 근원으로 부터 회피하게 된다(Vangelisti, 2001). 회피가 어려워지면 종종 인지적 손상을 경험하게 되어 인지적 작업수행 기능이 감소하게 된다. 만성적인 신체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기억, 회상에서 종종 저조한 수행능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Park, Glass, Minear, & Crofford, 2001)와 유사하게 사회적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GRE¹⁾에서의 수행수준이 저조하였다(Baumeister et al., 200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좌절을 주는 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umeister, DeWall, Ciarocco, & Twenge, 2005). 반복적으로 해로운 자극에 노출되면 유기체는 민감하게 되어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Meyersberg & Post, 1979). 실제로 신체자극에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재적 통증에 대한 자극에 과각성되어 선택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Keogh, Ellery, Hunt, & Hannent, 2001) 신체적 통증을 감지하고 경험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Asmundson, Norton, & Vlaeyen, 2004). 이와 유사한 패턴이 사회적 통증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사회적 위협을 많이 보고했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조작하는 사이버볼 게임을 하는 동안 집단 내에서 배척되었을 때 사회적 통증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Riva, Williams, & Gallucci, 2014). 또한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을 예상하며 불안해할수록 사회적 통증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gelisti et al., 2016).

반면, 일부 다른 연구에서는 통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습관화(habituation)되어 통증에 덜 민감해지고 예전보다 덜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aumeister, 1990; Bernstein & Claypool, 2012). 정서적 둔감이 나타나는 이러한 반응은 반복적인 거부나 배제의 결과로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일시적으로 손상되어 오히려 인지적/정서적으로 예민성을 낮추어 방어적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Dewall, Baumeister, & Masicampo, 2009). Dewall과 Baumeister(2006)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미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애정이 부족한 가정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호작용을 덜 고통스럽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angelisti, Maguire, Alexander, & Clark, 2007).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통증의 지속적 경험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

사회적 통증으로 인한 행동적 반응을 살펴보면 인지적 자원이 부족해진 결과 의사결정과 대처전략의 활용이 제한되어 자기통제력이 필요한 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신체적 만성통증을 경험하는 경우 적극적 대처전략이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동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회적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에도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2). 반면 약한 고통이라고 느낄수록, 그리고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한 고통일수록 자기패

1) GRE는 미국의 대학원 수학능력평가이다.

배적인 행동을 덜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사회적 통증으로 인한 생리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연인과 상처가 되는 상호작용을 한 후 혈중 코르티솔 농도가 증가하였고(Priem, McLaren, & Solomon, 2010), 사이버불 게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심박수 증가(Iffland, Sansen, Catani, & Neuner, 2014)와 동공 반응의 소실이 관찰되었다(Sleegers, Proulx, & van Beest, 2017).

사회적 통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살펴볼 수 있는 변인은 대인관계 거절민감성과 사회적 불안이다. 대인관계 거절민감성(Harb, Heimberg, Fresco, Schneier, & Leibowitz, 2002)은 타인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 과도하게 인식하여 거절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Downey & Feldman, 1996). 대인관계 거절민감성과 사회적 통증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반면,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대인관계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을 당했을 때 높은 불안을 경험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반면 대인관계 거절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은 거절을 경험할 때 버림받는 것에 대한 걱정이 낮고 수용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wney, Feldman, & Ayduk, 2000). 대인관계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의 단서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고 거절을 예측하며 실제로 거절이 경험되면 불안, 분노,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었다(Ayduk, Downey, & Kim, 2001; 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다른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거절민감성은 우울과 관련이 높으며, 많은 연구들을 통해 대인관계 거절민감성이 우울의 발생, 유지, 재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

(Boyce, Parker, Barnett, Cooney, & Smith, 1991; Boyce et al., 1990; Davison, Zisook, Giller, & Helms, 1989). 대인관계 거절민감성과 사회적 통증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대인관계 거절민감성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인 경우 사회적 거절이 경험될 때 신체적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였고(Macdonald & Shaw, 2005; Schmahl et al., 2006) 사회적 통증에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nneberg et al., 2012; Staebler et al., 2011). 즉 대인관계 거절민감성이 높은 경우 사회적 통증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 거절민감성은 생애 초반의 거부, 방치 및 학대 경험의 결과로 발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Ayduk & Gyurak, 2008) 사회적 통증은 사회적 단절로 인해 유발되는 즉각적이고 불쾌한 감정 상태로 볼 수 있다(MacDonald & Leary, 2005).

한편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회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특히 거절에 대한 공포와 높은 거절민감성 및 기대불안을 포함한다(Brennan & Shaver, 1995). 아동청소년들이 또래에게 거부되거나 특히 원하는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이후 사회불안과 사회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zelle & Rudolph, 2004; Ranta, Kaltiala-Heino, Fröjd, & Marttunen, 2013; Siegel, La Greca, & Harrison, 2009; Storch, Masia-Warner, Crisp, & Klein, 2005; Vernberg, Abwender, Ewell, & Beery, 1992). 마찬가지로 사회불안이 높은 성인은 과거에 경험했던 괴롭힘과 소외에 대한 기억을 더 많이 회상하는 경향이 있었다(Ishiyama, 1984;

McCabe, Antony, Summerfeldt, Liss, & Swinson, 2003; McCabe, Miller, Laugesen, Antony, & Young, 2010; Öst & Hugdahl, 1981; Stemberger, Turner, Beidel, & Calhoun, 1995). 사회적 거부로 인해 유발된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사회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 한 실험연구에서 또래에게 거부당했다고 믿는 아동들은 다른 또래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 관계는 부정적 감정의 강도에 의해 매개되었다(Erdley, Cain, Loomis, Dumas-Hines, & Dweck, 1997; Gazelle & Druhen, 2009).

사회적 통증과 사회적 불안은 둘 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화된 부정적 감정이며, 사회적 거부는 고통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감정은 서로 구별되는 감정이다(Leary & Leder, 2009). 사회적 통증은 거절과 더 관련이 높은 요소로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면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예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경험 이후에 발생한 사회불안은 사회적 통증의 강도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ung & Alden, 2017).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경험은 생애 초기 경험하는 정서적 방임, 학대 및 만성적 거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 SAD),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BPD의 발달에 기여하는 위협 요소이다(McLaughlin, Colich, Rodman, & Weissman, 2020). 사회적 통증과 정신병리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2가지 방법론적 접근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기보고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로써,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SAD, MDD,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PD)와 관련이 높았고(Gao, Assink, Cipriani, & Lin, 2017) 특히 BPD와 높은 관련이 있었다(Poggi, Richetin, & Preti, 2019).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배제의 상황을 연출하여 사회적 통증을 유발시키는 방식의 연구로서 MDD(Jobst et al., 2015), PD(Seidl et al., 2020), SAD(Fung & Alden, 2017)를 가지고 있는 임상군에서 높은 욕구위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inhard et al., 2020). PTSD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정상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Nietlisbach & Maercker, 2009).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사회적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요 정신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회적 배제로 유발되는 사회적 통증을 측정하기 위해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 정서성 및 부정적 정서성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척도를 사용해왔고 이는 사회적 통증을 측정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심리적 불편감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통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에 의거하여 Strangier 등(2021)은 사회적 통증 척도(Social Pain Questionnaire: SPQ)를 개발하고 요인구조,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를 확인한 바 있다. 사회적 통증이 유발되는 사회적 배제의 경험과 관련된 광범위한 상황이 포함된 46개 항목을 구성하고 3가지 다른 표본(온라인 표집, 대표표본, 임상표본)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10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 10개의 문항들은 1요인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 .940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적 통증 척도는 대인관계 거절민감성, 사회적 불안, 성인애착, 우울,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높은 수렴타당도와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Strangier 등(2021)이 개발한 사회적 통증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여 국내에서 사회적 통증을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되고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초개인화로 인해 사회적 배제현상이 만연화되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어 가는 국내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박민진, 김성아, 2022; 이승우 외, 2019), 신뢰롭고 간편한 척도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통증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방 법

문항 번역

본 연구를 위해 Strangier 등(2021)이 개발한 SPQ를 원저자의 허가를 받아 상담심리학 전공의 박사학위자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심리학 전공자에게 다시 역번역하는 절차를 통해 한국어 번안본을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역번역한 문항들을 원저자가 검토하여 본래의 문장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문항을 마련하였다.

대상

수도권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및 일반인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읽도록 하고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과정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한 추후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들 중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1명을 제외한 총 33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분포는 남자가 66명(19.5%), 여자가 273명(80.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7.67세($SD=9.23$)였다. 339명의 자료들 중 250명의 자료를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

사회적 통증 척도(Social Pain Questionnaire: SPQ). 사회적 배제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통증을 측정하기 위해 Strangier 등(2021)이 개발한 문항을 연구자가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식 척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의 상황에서 느끼는 사회적 통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trangier 등(202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0.950로 나타났다.

사회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Inventory: SPIN). Connor 등(2000)이 사회불안 증상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총 17문항의 자기 보고식 설문지로 “낯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두렵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식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공포를 경험하는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ho, Choi, Kim과 Hong(2018)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0.936이다.

대인관계 민감성 척도(Interpersonal Sensitivity Measure: IPSM). Boyce와 Parker(1989)가 타인의 대인관계 행동, 사회적 피드백,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36문항 자기보고 설문지이다. 4점 리커트식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람들과 헤어지려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거절민감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선영, 정나영, 연보라, 황선영, 이경옥(2011)이 번안하여 사용한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0.90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0.934로 나타났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용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전경구, 권기덕, 김상기(1999)가 개정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우울 증상의 빈도를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으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

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0.829로 나타났다.

PHQ-4(Patient Health Questionnaire-4: PHQ-4). PHQ-4는 2개의 우울 문항과 2개의 불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가 쉽고 빨라 선별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김현욱(2019)이 한국판 PHQ-4를 타당화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0.7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0.870로 나타났다.

성인애착척도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 Brennan, Clark과 Shaver(1998)가 개발하고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정한 척도를 국내에서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ECR-R은 성인애착-불안 18문항, 성인애착-회피 18문항의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인애착-불안은 친밀함에 대한 열망과 유기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며 “사람들과 헤어지려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애착-회피는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불신, 의존성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며 “다른 사람들이 내 감정을 감당하기 힘들까봐 두렵다”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음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0.931로 나타났으며, 성인애착-불안과 성인애착-회피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0.939과 0.889로 나타났다.

간이정신진단검사 단축형(Brief Symptoms Inventory-18: BSI-18). Derogatis와 Cleary (1977)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Symptom Checklist-90-Revised)를 Derogatis(2000)가 18개 문항으로 단축한 척도를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2012)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원저자의 연구에서는 신체화, 우울, 불안의 3요인 구조였으나 국내연구에서는 공황, 신체화, 불안, 우울의 4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증상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0.948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공황 0.792, 신체화 0.830, 불안 0.836, 우울 0.90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SPSS 28.0과 Amos 26.0을 활용하여 상관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339명 중 250명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ML)을 활용하여 각종 모형 적합도 지수(fit index)들을 근거로 비교해 보았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회불안, 대인관계 거절민감성, 성인애착, 우울, PHQ-4,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가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원척도에서 확인된 1요인 구조가 지지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총 339명의 자료 중 무작위 표본추출한 250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36.98세였으며($SD=8.904$), 이들 중, 여성은 214명(85.6%), 남성은 36명(14.4%)였다. 추정방식은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각종 모형 적합도 지수들을 근거로 평가하였다. 기본적으로 모형과 자료의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려되는 적합도 지수로 χ^2 검증이 사용되지만,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Browne & Cudeck, 1993), 상대적으로 사례수에 영향을 덜 받는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TLI(Tucker-Lewis Index; Bentler & Bonett, 198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 Lind, 1980) 지수를 확인하여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이상일수록 좋은 적합도로 여겨지고, RMSEA는 .08이하면 양호한 적합도로 여겨지며, 특히 .05이하면 매우 좋은 적합도로 간주된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5).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CFI는 .976이고 TLI는 .961로 모두 .90이

상으로 나타나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MSEA는 90% 신뢰구간으로 .072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수렴타당도

사회적 통증 척도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사용한 250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통증 척도와 관련 있는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예언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회적 통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우울과 정신건강과의 상관분석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은 Strangier 등(2021)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척도의

원저자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적 통증은 사회불안, 대인관계 거절민감성, 애착, 우울, 정신건강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거절민감성과의 상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r=.726, p<.001$), 이는 사회적 통증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가장 분명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통증은 회피애착($r=.226, p<.001$)보다 불안애착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는데($r=.589, p<.001$) 이는 사회적 고통이 높은 경우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높은 동시에 높은 수준의 신경증과 낮은 수준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haver & Brennan, 1992).

추가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검토하였다(Hair,

표 1. 확인적 요인분석의 전반적 적합도 (N=250)

	χ^2	df	p-value	CFI	TLI	RMSEA(90% CI)
1요인 모형	68.823	28	.000	.976	.961	.072(.048-.095)

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계수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SPQ1	1.000	.720			
SPQ2	.929	.714	.088	10.614	<.001
SPQ3	.851	.625	.092	9.262	<.001
SPQ4	.926	.821	.076	12.197	<.001
SPQ5	.998	.798	.084	11.951	<.001
SPQ6	1.073	.735	.097	11.017	<.001
SPQ7	1.013	.771	.088	11.518	<.001
SPQ8	1.084	.755	.096	11.280	<.001
SPQ9	.996	.693	.087	11.500	<.001
SPQ10	.856	.545	.105	8.155	<.001

표 3.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N=250)

	1	2	3	4	4-1	4-2	5	6	7
1. 사회적 통증	-								
2. 사회 불안	.524***	-							
3. 대인관계 거절 민감성	.726***	.640***	-						
4. 애착	.504***	.660***	.720***	-					
4-1. 불안애착	.589***	.626***	.780***	.889***	-				
4-2. 회피애착	.226***	.483***	.404***	.810***	.450***	-			
5. PHQ	.428***	.539***	.504***	.580***	.585***	.380***	-		
6. CES-D	.408***	.543***	.494***	.636***	.619***	.446***	.861***	-	
7. BSI-18	.364***	.532***	.464***	.581***	.569***	.403***	.844***	.893***	-

주. *** $p < .001$, 사회적 통증, 사회불안, 대인관계 거절민감성, 애착, PHQ, CES-D, BSI-18은 각 척도의 총점을 나타냄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이를 계산하기 위해 Fornell과 Larcker(1981)의 공식으로 AVE와 CR의 값을 각각 구하였다. AVE 값이 .5이고 CR 값은 .7이상일 때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AVE 값은 .521, CR 값은 .0866 으로 나타나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통증 척도(SPQ)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 Strangier 등(2021)이 개발한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안 작업을 하고, 한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통증과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고, 평균분산추출(AVE)과 합성신뢰도(CR) 검토를 통해 확인적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원척도에서 확인된 1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사회적 통증 척도와 이론적으로 관련 있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통증은 사회불안, 대인관계 거절민감성, 성인애착, 우울, 정신건강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trangier 등(2021)이 실시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공준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타인의 비판이나 거절에 대한 지각이나 거절을 예측하는 대인관계 거절민감성과의 상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원척도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결과이며 사회적 통증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가장 분명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평균분산추출(AVE)과 합성신뢰도(CR)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 처음으로 사회적 통증의 개념을 소개하고 동시에 한국판 사회적 통증 척도를 타당화하여 관련 연구의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기준에는 사회적 배제, 거부 및 관계의 평가절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긍정 및 부정정서성 척도(PANAS)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사회적 통증이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인의 특징적 성향을 더 잘 설명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에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적 통증은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통증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척도에서는 우울증, 사회불안 장애, 성격장애 등 다양한 임상군과 일반군의 사회적 통증 차이를 측정해 변별타당성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만 설문을 진행하였다.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적 통증이 표집에 따라 차이가 변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여성비율(80.5%)이 원척도의 여성비율(64%)보다 월등하게 높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본 표본의 편향성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통증 척도의 내적 합치도와 문항-총점간의 상관관계 확인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지만,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사회적 통증이 안정적 특질을 가진 척도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의 관계중심적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사회적 통증 문항 중 열 번째 문항인 “누군가 합당한 이유 없이 약속을 취소하

면 거부감이 든다(SPQ10)”라는 문항은 한국 문화권에서는 자신이 거절감을 경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무례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두는 반면 관계주의 문화권에서는 상대방과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영향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비록 인간에게 있어서 소속감의 욕구는 보편적이지만 개인중심적 서구문화권과 관계중심적인 한국의 대인관계 특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SPQ10 문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한국의 관계중심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을 추가로 개발하여 척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사회적 통증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여 사회적 배제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통증 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추후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통증이 유발된 상황과 관련된 연구와 개입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선영, 정나영, 연보라, 황선영, 이경옥 (2011). 소방공무원에서 우울 및 불안에 작용하는 대인관계 민감성/리질리언스의 영향. *대한불안의학회지*, 7(2), 107-112.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옥 (2019).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4 (PHQ-4)*.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BSI-18)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507-521.
- 박민진, 김성아 (2022).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127-141.
- 이승우, 백기청, 이경규, 이석범, 김경민, 김도현, 이정재 (2019). 독거노인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정신신체의학, 27*(2), 173-180.
- 전검구, 권기덕, 김상기 (1999). 한국판 CES-D 개정연구 1.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6(1), 429-451.
- Asmundson, G. J., Norton, P. J., & Vlaeyen, J. W. (2004). Fear-avoidance models of chronic pain : An overview. In Asmundson, G., Vlaeyen, J., & Crombez, G(Eds.), *Understanding and Treating Fear of Pain*(pp. 3-2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yduk, Ö., & Gyurak, A. (2008). Applying the cognitive affective processing systems approach to conceptualizing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5), 2016-2033.
- Ayduk, Ö.,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877.
- Bastian, B., & Haslam, N. (2010). Excluded from humanity: The dehumanizing effects of social ostrac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1), 107-113.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Twenge, J. M. (2005). Social exclusion impair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589-604.
- Baumeister, R. F., Twenge, J. M., & Nuss, C. K. (2002).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cognitive processes: Anticipated aloneness reduces intelligent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4), 817-827.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38-246.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ernstein, M. J., & Claypool, H. M. (2012). Social exclusion and pain sensitivity: Why exclusion sometimes hurts and sometimes numb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2), 185-196.
- Besikci, E., Dvir, M., & Williams, K. (2020). Ostracism. In *Encyclopedia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pp. 3366-3371).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Blackhart, G. C., Nelson, B. C., Knowles, M. L., & Baumeister, R. F. (2009). Rejection elicits emotional reactions but neither causes immediate distress nor lowers self-esteem: A meta-analytic review of 192 studies on social exclu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3*(4), 269-309.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London: The Hogarth Press.
- Boyce, P., & Parker, G. (1989).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interpersonal sensitivit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3*(3), 341-351.

- Boyce, P., Parker, G., Barnett, B., Cooney, M., & Smith, F. (1991). Personality as a Vulnerability Factor to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9*(1), 106-114.
- Boyce, P., Parker, G., Hickie, I., Wilhelm, K., Brodaty, H., & Mitchell, P. (1990). Personality differences between patients with remitted melancholic and nonmelancholic depress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11), 1476-1483.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3), 267-283.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 46-76).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Buelow, M. T., Okdie, B. M., Brunell, A. B., & Trost, Z. (2015). Stuck in a moment and you cannot get out of it: The lingering effects of ostracism on 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basic need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6*, 39-43.
- Connor, K. M., Davidson, J. R. T., Churchill, E., Sherwood, A., Foa, E., & Weisler, R. H. (200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ocial phobia inventory: New self-rating sca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6*, 379-386.
- Davidson, J., Zisook, S., Giller, E., & Helms, M. (1989). Symptoms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in depression. *Comprehensive Psychiatry, 30*(5), 357-368.
- Derogatis, L. R., & Cleary, P. A. (1977). Confirmation of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the SCL 90: A study in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4), 981-989.
- Derogatis, L. R. (2000). *The Brief Symptom Inventory-18(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3rd ed.). Minneapolis: National Computer Systems.
- DeWall, C. N., & Baumeister, R. F. (2006). Alone but feeling no pain: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physical pain tolerance and pain threshold, affective forecasting, and interpers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15.
- DeWall, C. N., Baumeister, R. E., & Masicampo, E. J. (2009). Rejection: Resolving the paradox of emotional numbness after exclusion. In Anita L. Vangelisti (Eds). *Feelings Hurt in Close Relationships*, 123-141.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 Eisenberger, N. I. (2012). The pain of social disconnection: Examining the shared neural underpinnings of physical and social pai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3*(6), 421-434.
- Eisenberger, N. I., & Lieberman, M. D. (2004). Why rejection hurts: A common neural alarm system for physical and social pai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8*(7), 294-300.
- Eisenberger, N. I., Lieberman, M. D., & Williams, K. D. (2003). Does rejection hurt? An fMRI study of social exclusion. *Science, 302*(5643), 290-292.
- Erdley, C. A., Cain, K. M., Loomis, C. C.,

- Dumas-Hines, F., & Dweck, C. S. (1997). Children's social goals and implicit theories as predictors of their responses to social failure.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63-272.
- Fayant, M. P., Muller, D., Hubertus Joseph Hartgerink, C., & Lantian, A. (2014). Is ostracism by a despised outgroup really hurtful?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Gonsalkorale and Williams (2007). *Social Psychology, 45*(6), 489-494.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
- Fung, K., & Alden, L. E. (2017). Once hurt, twice shy: Social pain contributes to social anxiety. *Emotion, 17*(2), 231.
- Gao, S., Assink, M., Cipriani, A., & Lin, K. (2017). Association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mental health outcome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57*, 59-74.
- Gazelle, H., & Druhen, M. J. (2009).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predict social helplessness, upset affect, and vagal regulation in response to behavioral rejection by a friend.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1077-1096.
- Gazelle, H., & Rudolph, K. D. (2004). Moving toward and away from the world: Social approach and avoidance trajectories in anxious solitary youth. *Child Development, 75*(3), 829-849.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SE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ultivariate Data Analysis, 6*, 770-842.
- Harb, G. C., Heimberg, R. G., Fresco, D. M., Schneier, F. R., & Leibowitz, M. R. (2002).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Sensitivity Measure in social anxiety disorde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0*, 961-979.
- Hu, L., & Bentler, P. M. (1995). Evaluating model fit.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76-99).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 Iffland, B., Sansen, L. M., Catani, C., & Neuner, F. (2014). Rapid heartbeat, but dry palms: reactions of heart rate and skin conductance levels to social rejection. *Frontiers in Psychology, 5*, 956. doi: 10.3389/fpsyg.2014.00956.
- Ishiyama, F. I. (1984). Shyness: Anxious social sensitivity and self-isolating tendency. *Adolescence, 19*(76), 903-911.
- Jobst, A., Sabass, L., Palagyi, A., Bauriedl-Schmidt, C., Mauer, M. C., Sarubin, N., ... & Padberg, F. (2015).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emotions and oxytocin and cortisol levels in patients with chronic depression.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60*, 170-177.
- Keogh, E., Ellery, D., Hunt, C., & Hannent, I. (2001). Selective attentional bias for pain-related stimuli amongst pain fearful individuals. *Pain, 91*(1-2), 91-100.
- Leary, M. R. (1990).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Social anxiety, jealousy, loneliness,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2), 221-229.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 MacDonald, G., & Leary, M. R. (2005). Why does social exclusion hurt? The relationship between

- social and physical pain. *Psychological Bulletin*, 131(2), 202-223.
- Macdonald, G., & Shaw, S. (2005). Adding Insult to Injury: Social Pain Theory and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In Williams K, Forgas J, von Hippel W(Eds.), *The Social Outcast: ostracism, social exclusion, rejection, & bullying*(pp. 77-91). New York: Psychology Press.
- McCabe, R. E., Antony, M. M., Summerfeldt, L. J., Liss, A., & Swinson, R. P. (2003).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disorders in adults and self-reported history of teasing or bullying experiences.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2(4), 187-193.
- McCabe, R. E., Miller, J. L., Laugesen, N., Antony, M. M., & Young, L.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disorders in adults and recalled childhood teasing.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2), 238-243.
- McLaughlin, K. A., Colich, N. L., Rodman, A. M., & Weissman, D. G. (2020). Mechanisms linking childhood trauma exposure and psychopathology: A transdiagnostic model of risk and resilience. *BMC Medicine*, 18(1), 1-11.
- Meyersburg, H. A., & Post, R. M. (1979). An holistic developmental view of neural and psychological processes: A neurobiologic-psychoanalytic integr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139-155.
- Molet, M., Macquet, B., Lefebvre, O., & Williams, K. D. (2013). A focused attention intervention for coping with ostracism. *Consciousness and Cognition*, 22(4), 1262-1270.
- Nietlisbach, G., & Maercker, A. (2009). Social cognition and interpersonal impairments in trauma survivors with PTSD.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8(4), 382-402.
- Onoda, K., Okamoto, Y., Nakashima, K. I., Nittono, H., Ura, M., & Yamawaki, S. (2009). Decreased ventral anterior cingulate cortex activity is associated with reduced social pain during emotional support. *Social Neuroscience*, 4(5), 443-454.
- Öst, L. G., & Hugdahl, K. (1981). Acquisition of phobias and anxiety response patterns in clinical 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9(5), 439-447.
- Park, D. C., Glass, J. M., Minear, M., & Crofford, L. J. (2001). Cognitive function in fibromyalgia patients. *Arthritis & Rheumatism: Official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44(9), 2125-2133.
- Poggi, A., Richetin, J., & Preti, E. (2019). Trust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personality disorders. *Current Psychiatry Reports*, 21(8), 1-9.
- Priem, J. S., McLaren, R. M., & Haunani Solomon, D. (2010). Relational messages, perceptions of hurt, and biological stress reactions to a disconfirming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37(1), 48-72.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anta, K., Kaltiala-Heino, R., Fröjd, S., & Marttunen, M. (2013). Peer victimization and social phobia: A follow-up study among adolesc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8, 533-544.
- Reinhard, M. A., Dewald-Kaufmann, J., Wuestenberg, T., Musil, R., Barton, B. B., Jobst, A., & Padberg, F. (2020). The vicious circle of social exclusion and psychopathology: A systematic review of experimental ostracism research in psychiatric disorders.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70(5),

- 521-532.
- Renneberg, B., Herm, K., Hahn, A., Staebler, K., Lammers, C. H., & Roepke, S. (2012). Perception of social particip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9*(6), 473-480.
- Riva, P., Williams, K. D., & Gallucci, 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social and physical threat and its effect on social distress and physical pain perception. *PAIN@, 155*(3), 485-493.
- Schmahl, C., Bohus, M., Esposito, F., Treede, R. D., Di Salle, F., Greffrath, W., ... & Seifritz, E. (2006). Neural correlates of antinocicep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3*(6), 659-666
- Seidl, E., Padberg, F., Bauriedl-Schmidt, C., Albert, A., Daltrozzo, T., Hall, J., ... & Jobst, A. (2020). Response to ostracism in patients with chronic depression, episodic depress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study using Cyberball.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60*, 254-262.
- Shaver, P. R., & Brennan, K. A.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5), 536-545.
- Siegel, R. S., La Greca, A. M., & Harrison, H. M. (2009). Peer victimization and social anxiety in adolescents: Prospective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 1096-1109.
- Slegers, W. W., Proulx, T., & van Beest, I. (2017). The social pain of Cyberball: Decreased pupillary reactivity to exclusion cu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9*, 187-200.
- Smith, A., & Williams, K. D. (2004). RU there? Ostracism by cell phone text messages.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4), 291-301.
- Staebler, K., Renneberg, B., Stopsack, M., Fiedler, P., Weiler, M., & Roepke, S. (2011). Facial emotional expression in reaction to social exclu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ological Medicine, 41*(9), 1929-1938.
- Strangier, U., Schüller, J., & Brähler, E. (202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pain. *Scientific Reports, 11*(1), 8283.
- Steiger, J. H., & Lind, J. M. (1980). *Statistically 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 Stemberger, R. T., Turner, S. M., Beidel, D. C., & Calhoun, K. S. (1995). Social phobia: an analysis of possible development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3), 526-531.
- Storch, E. A., Masia Warner, C., Crisp, H., & Klein, R. G. (2005). Peer victimization and social anxiety in adolescence: A prospective study.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1*(5), 437-452.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1069.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2). Social exclusion causes self-defe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606-615.
- Van Beest, I., & Williams, K. D. (2006). When inclusion costs and ostracism pays, ostracism still hur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5), 918-928.
- Vangelisti, A. L. (2001). Making sense of hurtful

- interactions in close relationships: When hurt feelings create distance. In V. Manusov & J. H. Harvey (Eds.), *Attribution, Communication Behavior, and Close Relationships* (pp. 38-58).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gelisti, A. L., Maguire, K. C., Alexander, A. L., & Clark, G. (2007). Hurtful family environments: Links with individual, relationship, and perceptual variables. *Communication Monographs, 74*(3), 357-385.
- Vangelisti, A. L., Pennebaker, J., Nelson, E. C., Kurlak, R., Brody, N., & Guinn, T. (2016, July). *Revisiting the link between social and physical pain: The influence of physical symptoms, self-construals, and rejection sensi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lationship Research, Toronto, Ontario
- Vernberg, E. M., Abwender, D. A., Ewell, K. K., & Beery, S. H. (1992). Social anxiety and peer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ce: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2), 189-196.

원고접수일: 2023년 7월 5일

논문심사일: 2023년 8월 31일

게재결정일: 2023년 11월 28일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Pain Questionnaire

Sohee Ko

Mind Shelter Counseling Cent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unghee An

Department of Education
Hongi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Pain Questionnaire (SPQ; Strangier, Schüller, & Brähler, 2021). A total of 339 adults aged between 20 and 64 completed the Korean version of the SPQ: K-SPQ. The K-SPQ consists of 10 items and was translated into Korean with reverse processes executed to ensure linguistic fidelity to the original scal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the instrument's structural validity. The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the goodness of fit of the 1-factor model, thus affirming the unidimensional structure inherent in the K-SPQ. Following this, an exploration of convergent validity reveal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constructs such as adult attachment, social anxiety, interpersonal rejection sensitivity, depression, and mental health. These findings provided robust support for the average variance extracted and the composite reliability metrics. In summation, the outcomes of this inquiry collectively affirm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SPQ. Following this validation, the study delved into the discussion of its inherent limitations and insightful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endeavors.

Keywords: Social Pain Questionnaire, Social Exclusion, Validation of Scale